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0월13일(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 ..... 1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

(10시11분)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 중 일부 증인을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출석요구 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요구되는 증인의 경우 자진 출석을 전제로 증인을 변경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지금 증인 신청이 여야 간 합의로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이번 국감 자체가 사실 윤석열 정권의 거의 마지막 국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중에 저희 국토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동해 이상화 증인만이 신청돼 있는데 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저희가 협상을 좀 종감 때까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김건희특검 수사 상황을 봤을 때는 인수위에

파견 갔었던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청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견 사실 등을 확인해서 유일하게 실명이 나오는 인물이 백원국전 2차관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증인 신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양당 간사께서 종감 때까지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분들은 소속 간사님들한테 의견을 주시고요. 그것을 모아서 간사님들이 협상을 해서 저희가 목요일 날 국정감사 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님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증인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광주 북구갑 정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광주·전남 유일의 국토위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본회의장에서 김정재 위원이 ‘호남에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해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9월에 김정재 위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연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김정재 위원이 몇 가지 해명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호남민들을 상대로 한 사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김정재 위원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호남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 진정성 있는 사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의 신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상발언에 앞서서 국민과 민생을 쟁겨야 할 우리 정치가 상대 정파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버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부끄러움마저 느낍니다.

지난 9월 25일 당시 본회의 상황은 회의장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유례없는 초대형산불 피해를 지원하고자 여야가 함께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고 또 처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에게 이 법은 단순한 재해지원법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역구인 포항 역시 지진이라는 큰 재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법이었지만 우리 여야가, 특히 그 당시 여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그 힘듦에 동참

을 해 주셔서 지원 특별법을 정말 잘 만들어서 수십만 명의 피해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재난에 관해서는, 특히 재난지원 특별법은 여야 모두가 찬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또 절실함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분들이 자리에 재석하지 않으셨고 여기에 다수의 기권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말 심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재난에는 여야도 없고 영호남도 따로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지역, 호남 지역을 언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또 그러한 오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미 저는 저의 발언에 대한 첫 보도가 있은 직후 바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한 유감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이토록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급기야 저의 취지와 다르게 ‘호남은 불 안 나나’라는 발언 부분을 왜곡·확산시켰고 이를 마치 제가 호남에 화재를 바라기라도 하는 양 사실을 호도하는 사람들까지 가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말이 왜곡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재차, 3차 왜곡을 일삼으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데에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용기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민주당 누가 반대했길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맹성규 이렇게 하시지요.

○김정재 위원 아니, 30초만……

○위원장 맹성규 어차피 의견이……

○김정재 위원 마지막……

○위원장 맹성규 마무리하시고 의견 있으면 저희도 하시지요.

○김정재 위원 30초만,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하세요.

○김정재 위원 이런 과도하고 악의적인 왜곡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결국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데 따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발언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호남 국민들이 마음이 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저의 발언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누가 왜곡을 하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까?

저도 당시 상황 발언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김정재 위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주위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낄낄거리면서 같이 웃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저주의 발언을 하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같이 낄낄거리고 웃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그것을 왜곡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역대 국회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김정재 위원께서 발언하신 ‘호남에 불 안 나나’ 이런 발언처럼 지역을 저주하고 국민을 모독한 발언은 역대 가장 끔찍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민의의 전당을 혐오의 무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다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사과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시간 지났다고 또 그것을 곤해해서 왜곡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분명히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 위원님.

○**김정재 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에 불이 나라라는 걸로 했다면 저는 사과가 아니라 국회의원 사퇴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재난은 지역을,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난다, 그러니 이 법안은 찬성을 좀 해 달라, 왜 기권을 하느냐, 찬성하자, 찬성해서 다 도와주자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왜 듣고 웃냐고요! 웃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라도?

○**김정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단어가 들어가서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의 진의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돋자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연희 위원** 함께 돋자고 하는데 그것을 낄낄거리고 웃으신다는 말입니까, 같은 동료 의원들이?

○**김정재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누가 왜곡을 한다 그래요?

○**정준호 위원** 계속 왜곡이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권영진 위원** 아니, 들어 봐요. 아니, 들어 보라고 왜 이렇게 싸움을……

○**김종양 위원**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질서를 지켜야지요. 위원장님은 거기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전용기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하고 가야지요.

○**김종양 위원** 하더라도 순서를 지켜 가지고 발언 기회를 얻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준호 위원** 왜곡이라는 말만 오늘 지금 열 번이 넘게 나왔어요!

○**전용기 위원** 그건 사과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재 위원 아니,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진의를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호남에는 불이 안 나나. 재난에는 여야도, 영호남도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 말 듣고 왜 사람들이 웃냐고요!

○한준호 위원 여기서 녹취를 한 열 번만 틀어 봅시다.

○전용기 위원 앞에 그 말씀 하셨어요? 재난에 여야가 있느냐고 하셨어요? 그것 안 하셨잖아요. 사투리 탓하셨잖아요.

○김정재 위원 위원님들, 제가 이유 여하를……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용기 위원 경상도 사투리가 깊어서 그렇다 했잖아요.

○김정재 위원 지역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호남 국민들께 그것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제대로 사과를 하시라고요, 무슨!

○김정재 위원 이것을 더 이상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위원장 맹성규 지금 김정재 위원님께서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은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 상황이 만들어진 게 사실이고, 우리 호남에 계신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인은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언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기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전용기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용기 위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의적 왜곡이고 오해だ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재난이 일어나 야 된다는 뉘앙스로 읽었습니다. 그 옆에서 깔깔거리고 웃었다고 하는 그런 제보가 계속 있고, 녹취 틀어 보자고 하는 내용에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남에 불난 것 지원하자고 하는 법안에 민주당 한 명이라도 반대했습니까? 기권을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 다 찬성했습니다. 다른 야당의 기권한 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호남이랑 엮는 것은 명백한 지역감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감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앞에 ‘재난에는 영호남이 없다’라고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변명은 ‘경상도 사투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영남 출신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반성하지 않고 오해다, 악의적 왜곡이다, 적개심에 탓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과거에 이런 사건 많았습니다. 수해 복구 가서 ‘사진 잘 나

오게 비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 계셨습니다. 그분 책임지고 탈당하시고 본인 책임 다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 뉘앙스는 뭐였겠습니까? 진짜 비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거였겠습니까? 본인은 오해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뉘앙스를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적개심에 가득 차서 우리한테 악의적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성 안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호남시민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보낼 게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맹성규 권영진 간사님.

○권영진 위원 우리가 지금 국정감사 첫날인데 같이 국정감사를 해야 될 위원님의 전의 발언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면 이게 의도가 있는 걸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천준호 위원 무슨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권영진 위원 아니, 제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얼마든지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지금 김정재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자기 진의를 말씀하셨잖아요, 호남을 비하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발언으로 인해서 호남인들이 입었던 상처나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죄송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말씀하고 사과한 거라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더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과행시킬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위원장님, 마무리를 하시지요.

저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유감,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에서 마치시지요.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김정재 위원님 말씀 입장 표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냐면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이 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이 진행이 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다른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듣기 거북하셔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이 어떻다는 것은 충분히 들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 더 말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보세요.

○김희정 위원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 잠깐 얘기를 해 보세요.

○송기현 위원 잠깐만 제가……

○위원장 맹성규 송 위원님 얘기하세요.

○송기현 위원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기도 하고 또 사과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이 갑자기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정말 그렇게 들었거든요. 오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악의적인 왜곡이다, 정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들은 사람은 진짜 그렇게 들은 거예요. 들은 것을 들은 대로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말실수했구나, 오해를 줬구나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저희들을 공격하시잖아요. 왜 악의적으로 왜곡하느냐…… 저희들이 왜곡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분노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가 정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당에서 그것을 수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과를 수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도 있고 또 국민의힘도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 입장은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하시고 국민의힘 입장은 맞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 정말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도 저희들 진심이고 이것 정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제가……

○권영진 위원 간사님께서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 말씀 먼저 듣고.

○복기왕 위원 국정감사 시작하는 첫날 그동안 일을 해 오고 합의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처리되고 서로 인상 쓰지 않았던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또 특정 위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 자체가 말씀하신 위원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듣는 사람들은 실제 내 귀를 의심할 정도의 깜짝 놀라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의 장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로서 같은 상임위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정치적 상대방이면서 동시에 동료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사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왜곡한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본의는 아니었으나 듣는 분들에게 그렇게 들렸다면 저의 부족함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쟁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도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상임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위원님의 사과의 모습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두괄식으로 정리된다고 가정을 해 보면 민주당에서 악의적 왜곡을 한 것으로 결론이 들

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유감스럽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는 말씀을 담백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말을 얼마나 더 길게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말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 걸지 마시고 담백하게, 저희를 상대로 해서 사과하지 마시고 그것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말씀 해 주시면 저는 우리 상임위가 지금까지처럼 무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셨는데 당사자로서는 아프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위원님께서 좀 더 담백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양 위원** 끝낼 거예요, 이제?

○**위원장 맹성규** 김종양 위원님 하시겠어요? 아니면 김정재 위원님……

○**복기왕 위원** 그만하지요.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김종양 위원** 정말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어떻게 상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나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앞에 있었습니다. 김정재 위원이 그 말을 했을 때 단 1초의 어떤 주저함도 없이, 생각도 없이 저것은 맞아, 이번에는 경상도 지역에서 불나 가지고 이 법 만들었으니까 이 법 만들어 놓으면 혹시 다른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도 불나도 이것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 너네도 불날 수 있다, 그 지역에도 불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때 물론 민주당은 100%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당에서 여섯 표인가 일곱 표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게 100% 찬성될 줄 알았는데 몇 표의 기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도 없이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석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의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 위원들께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구나, 경상도 지역에서는 그런 말을 갖다가……

○**정준호 위원** 그 뒤에 그러면 낄낄 웃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김종양 위원** 그런 말을 갖다가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위원들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여기 와 가지고 쟁점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앞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왜곡해 가지고 받아들였듯이 우리는 또 왜곡해 가지고 받아들인다고요.

○**정준호 위원** 왜 또 왜곡이라는 말이 나오고. 웃는 사람들은 국힘이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웃었어요?

○**김종양 위원** 그러니까 김정재 위원이 하는 말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은 했지요, ‘호남 지역에는 불 안 나나’. 팩트는 맞습니다. 그 진실은 불나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도 불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특례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한 취지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관련해 가지고 기회를 얻었으니까 또 이 분야 말고 제가 중인 신청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국감 관련해 가지고 중인 신청 26명, 일반증인 26명 돼 있더라고요, 물론 한두 명 빠졌겠지요. 대부분 볼 것 같으면 건설사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국제기구 대표로서 많은 국제적인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그럴 때, 만날 때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데 있어서 정치인보다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훨씬 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대한민국 정치인은 몰라도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알고 대한민국은 잘 몰라도 대한민국 주요 기업들은 잘 알더라고요.

그 주요한, 그렇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해 준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신중한 어떤 생각도 없이 지금 여기 쟁쟁한 건설사 대표들을 다 불러 놓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인 신청, 일반 기업 인들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분들 중인 신청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런 것을 남용하지 말고 절제,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다른 날 국정감사 때 증인들이 출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중인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견이 있거나 문제 제기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증인들을 간사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주시면 다음 증인 신청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대 위원님 하시지요.

**○신영대 위원** 김종양 위원님이 김정재 위원님을 도와주시려다가 도와주신 게 아닌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김정재 위원님 저도 산자위에서 함께 하면서 모시고, 화끈하시고 그러신 분이라서 저는 오늘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오히려 좀…… 사과라는 것은 어정쩡한 사과는 안 하느니만 못한 거라서 그렇게 주실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재선을 하면서 2019년에 김정재 의원이 빌의했던 포항지진 특별법 같은 경우 그것이 좀 미흡해서 제가 초선됐을 때 개정안 통과시킬 때 저희 민주당에서 전폭적으로 함께해서 통과시킨 적도 있고 부산엑스포 유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결의안도 함께 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일이니까 함께했던 거고요. 가덕도신공항 경우 저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새만금공항은 잘 안 해 주는데 왜 부산 쪽만 해 주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단 1명도 예외 없이 했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국회, 의회라는 곳은 여야 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역이 균형발전하는 측면들 그리고 재난의 지원만큼은 여야 간에 이견 없이 함께 지원하고 노력해 왔던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김정재 위원님이, 저는 실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발언 하셨으면 명백하게 실언이었다고 사과를 하시고 이로 인해 상처받은 분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김정재 위원님의 정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건데 전자에 송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정쟁이고 왜곡돼 있고 공격의 소재로 삼고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이 사과 부분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종양 위원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권영진 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심풀하고 담백하게 사과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종양 위원님께서 중인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기업인을 안 부를 수 없잖아요. 기업인이 그 정도로 다 낫습니까? 범법행위를 하고 그리고 갑질행위를 하고 이런 기업인들은 와서 국회에서 질타도 하고 이게 개선되게 하는 게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거지 무조건 기업인을 부르면, 국회가 부른 것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시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정재 위원님,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정재 위원 이렇게 정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데, 사실 우리 국토위는 민생을 쟁기는 그런 국감입니다. 그런데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야 위원님들이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니까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발언의 취지만큼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한번 진심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 진심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재난은 영호남 지역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호남이나 영남이나 어디든 나든 지원을 다 같이 100% 찬성을 해 주자라는 게,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언급해서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 국민들 또 위원님들 모두가 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또 그랬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보통 국회의원들이 유감이다 하지만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향후에 행여나 이렇게 오해를 살 발언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적 왜곡’ 이런 것들은 제 말이 잘못 전달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물론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다는 것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좀 한번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처음 모두에 말했던, 우리 여야가 이렇게 상대에 대한 정말 어떤 적개심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오늘 우리 상임위는 첫 국정감사에서 건설안전 관련 일반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등 다뤄야 할 국민적 관심사항 및 민생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과행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당초 계획된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재 위원님께서 지금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이 선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회의는 정회한 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3인)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청이유	비고
조태제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	10. 13(월) 국토교통부 등	건설사고 증가 등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		건설사고 안전사고,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등	
여성찬	DL 건설 대표		건설사고 증가 등	추가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철도차량 입찰 담합, 대기업 갑질 등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에 대해 부정적 영향 우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안전 관련	
박현철	롯데건설(주) 대표		건설사고 증가 등	출석요구일 변경
이해욱	DL 그룹 회장			
정경구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	10. 13(월) 국토교통부 등	건설사고 증가 등	철회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청이유	비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12. 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관련	
최주선	삼성 SDI 대표		리튬배터리 화재사고 관련 현안질의	
허윤홍	GS 건설 사장		건설사고 증가 등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	10. 29.(수) 국토교통부 등	건설사고 안전사고,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등	

## 참고인(2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청이유	비고
김유진	12. 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10. 13.(월) 국토교통부 등	여객기 참사 관련	추가
신장수	금융위원회 공무원	10. 29.(수) 국토교통부 등	은행이 감정평가사법을 우회해 자체 감정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질의	출석요구일 변경

## ○출석 위원(29인)

권영진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박용갑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신영대 안태준 엄태영 염태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이건태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천준호 한준호 황운하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 【보고사항】

##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한병도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2025. 9. 25.